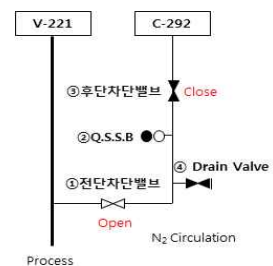


맹판 작업 중 실수로 또 다시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 맹판 작업 중 수소 누출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수소공장에서 맹판(Blind) 설치 작업 중에 작업자 실수로 수소가 누출되면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단의 차단밸브가 개방(Open)된 것을 모르고 밸브 맹판작업 중에 수소가 대량 누출된 것이다. 과거 사고사례를 보면 맹판을 설치하지 않아 질식으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맹판 전환 작업 중 포스겐이 누출되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맹판설치 과정 중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왜 혼자서 맹판설치 작업을 했을까?

이번 사고는 정전으로 비상정지 된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승온 후 맹판을 차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맹판 작업은 위험물 배관을 완전한 차단하거나 개방하는 작업으로 작업이 위험하여 2인 이상이 작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혼자 작업을 수행하였고 안전작업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다. 사내 작업허가절차 규정에 따라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함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작업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 왜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까?

위험물 취급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실수로 젊은 작업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그렇다면 왜 밸브를 차단하지 않았을까? 안전작업 절차를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장에서 안전작업절차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작업절차는 준수 되어야 한다.

맹판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단의 밸브를 차단하여야 한다. 정비·보수 작업계획서에는 이러한 안전작업절차를 포함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엔 괜찮겠지", "아무문제 없을거야"라는 순간의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